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추석 앞두고 농산물시장 '북적북적'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6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농산물시장을 찾은 상인들이 품질 좋은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경매를 하고 있다.

도민체전 개막... 내달까지

배드민턴 - 군산
볼링 - 부안
철인3종 - 완주
영광의 1위 차지

코로나19 고려 방역 최우선
정강선 회장 등 도체육회
임직원들, 출전 선수 격려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 속에 막이 올랐다.

전북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분산 개최로 치러지는 도민체전이 지난 3일 배드민턴과 볼링 철인3종 경기 등 일부 종목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펼쳐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도민체전은 당초 익산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역을 최우선으로 개·폐회식과 종합시상은 생략한 채 도내 각 시군에서 35개 종목(정식 34개·사범 1개)이 나눠 펼쳐진다. 전 종목 무관중 경기와 더불어 종목별 순위만 책정하는 이번 도민체전에서 스타트를 끊은 종목은 배드민턴과 볼링, 철인3종 경기다.

배드민턴에서는 군산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볼링은 부안군이 1위를 차지했고 군산시가 2위, 남원시가 3위를 차지했다. 완주군이 철인3종 경기에서 1위에 올랐고,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한편 정강선 회장과 신준섭 사무처장 등 전북체육회 임직원들은 각 경기장을 찾아 시·군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 국민지원금 신청 공급증 해소·불편 최소화

전북도, 자체 콜센터 운영... 11월 12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지급 및 절차 등 도민의 공급증 해소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 콜센터(290-8400)가 본격 운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도 자체 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 콜센터는 국민지원금 신청·접수, 지급방법, 지급절차, 이의신청과 각종 민원상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사전교육 및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14개 시·군에서도 자체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일관적인 상담부터 가구구성 문의사항,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방법, 이의신청 등 각종 민원상담 사례를 시군과 수시로 전화·공유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1월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1인당 26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맞벌이·1인가구 특례적용)이며, 전북도는 전체 도민의 90.3%인 162만724명이 해당되고 총사업비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4,074억원이 투입된다.

신용카드 등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가능하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급하고, 도민들이 불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도, 이달부터 도내 도시가스 공급비용 평균 2.34% 인하

전북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평균 2.34%(2.02원/㎡) 인하하고, 기본요금(750원)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공급비용 산출하고, 지난날 27일 물가 대책 실무위원회와 3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가스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조정·심의한 결과이다.

이번 소비자 요금 조정으로 월평균 50㎡를 사용하는 전주지역 주택용 소비자의 경우, 전년 대비(지난해 9월 기준) 매월 12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호상 기자

"전북 경제체질 개선"

신원식 신임 전북도 정부부지사 오늘 취임



전북도는 신임 신원식(66) 전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회장 상근 부회장이 7일자로 제20대 정부부지사에 취임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안 출신인 신 부지사는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행정고시(1980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협력과, 산업정책과를 거쳐 통상자원과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삼성중공업 이사 효성기계공업(주) 전무, 일진전기(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환경부 산하의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했다.

도는 신 부지사가 중앙정부와 여러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경험·연륜과 폭넓은 인맥을 두루

갖춘 정부부지사 적임자로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기업 투자 유치 등 민선7기 도정 핵심 업무를 챙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부지사는 코로나19로 엄중한 도내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도청 기자실을 찾아 의지를 표명한 뒤, 도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신 부지사는 "몸은 멀리 있어도 고향 전북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면서 "고향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중앙정부와 기업에서 쌓았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토대로 전북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민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친환경 산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http://mj1614.com

"코로나19 청정지역 무주! 농부의 정직함이 담긴"

반딧불 농·특산물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http://mj1614.com

"무주 반딧불 직거래장터에서 만나보세요!"

전품목 무료택배 | 이용문의:063)320-2770, 063)322-0278

muju 무주군